



류현진 '흥행몰이' 개막전부터 뚝다

류현진이 25일 일본 오키나와현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2차 스프링캠프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년 하위에 머물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올시즌에는 가을야구 잔치에 초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에서 뛰던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계약과 동시에 일본 오키나와 현지훈련에 합류해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최원호 감독도 류현진의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 등판을 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류현진의 개막전 등판은 겨울잠을 깨는 프로야구 흥행몰이에 최고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최 감독은 이날 팀 스프링캠프가 진행 중인 일본 오키나와현 아에세 긴 야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수가 없다면 류현진은 개막전에 들어간다. 날씨 때문에 원래 잡은 훈련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개막전에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화는 다음달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지난해 프로야구 챔피언인 LG 트윈스와 KBO리그 2024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23일 한화 훈련 캠프에 합류한 이후 불

한화 다음달 23일 디펜딩 챔피언 LG와 3연전 투입 최원호 "페디보다 수준 높아...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펜 투구를 한 차례 소화한 류현진은 26일 한 차례 더 불펜에서 던진 뒤 29일쯤 첫 라이브 피칭을 할 전망이다.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추가 투구 없이 귀국할 예정이며 첫 실전 경기 등판은 시범경기 개막에 앞서서 계획한 구단 자체 청백전이 될 전망이다. 시범경기에서는 두 차례 정도 마운드에 올라가 최종 점검한다. 최 감독은 "개막전에 류현진이 나간다면 투구 수 80개 전후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경기를 뛰더라도 100개 안쪽으로 관리해줘야 한다. 류현진은 이닝보다는 개수에 더 신경 쓰더라"고 전했다. 류현진에게 밥 먹듯 100구를 넘기고 한 시즌이 끝나면 심심찮게 200이닝을 돌파했던 과거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게 최 감독의 생각이다. 최 감독은 "그래도 1선발로 나간다면 150~160이닝 정도 던질 것 같다. 나이와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해 투구 수를 조절해 가며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감독은 이와 함께 "젊을 때처럼 한 경기 120구는 어려울 것이다. 시즌 초반에는 100구 내로 관리하다가 중반 이후 많아져 110구가량 던질 것"이라며 투구량 조절에 각별한 관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건강하게 선발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이닝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초반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건강하기만 하면 류현진의 활약 여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류현진은 23일 불펜에서 45구를 던졌고 최 감독은 계속 감탄하며 이를 지켜봤다. 최 감독은 류현진의 첫 불펜 투구를 놓고 말 그대로 "아트(예술)조 뭐"라고 흠족함을 표현했다. 그는 "류현진 본인은 가볍게 던졌다고 하는데 볼 끝도 좋고 좌우 로케이션이 완벽했다. 수준급 피칭을 오랜만에 봤다"고

평가했다. 작년 KBO리그를 지배했던 에릭 페디(전 NC 다이나믹스-현 시카고 화이트삭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최 감독의 판단이다. 최 감독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봐도 류현진이 페디보다 윗급"이라며 "뭉만 괜찮다면 잘 던질 거다. 페디가 국내 기준으로는 최정상급이라도 메이저리그에서 똑같은 공으로 다시 통할지는 의문이다. 지금 공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안정적으로 던진 류현진의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류현진 구속은 전력투구하면 시속 140km 중반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화는 류현진의 갑작스런 팀 합류로 시즌 목표를 재조정한다. 최 감독은 "가을야구를 목표로 한 시즌이었고 류현진의 등장으로 기대감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승률 5할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관건은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만 헤쳐 나갈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맨유 '안방'서 풀림에 패배

21년 만에... 아심만만 렛클리프 체제에 찬물 EPL 6위... 내년 시즌 UCL행 티켓 가물가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영국의 억만장자 제임스 랫클리프를 공동 구단주로 영입했다. 랫클리프가 취임 일성으로 과감한 투자로 지역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리버풀을 3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맨유는 구단 역사에 남을 불명예스러운 패배를 당했다. 랫클리프 체제로 재편을 발표한 맨유가 2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4 EPL 26라운드 홈경기에서 풀림에 1-2로 패했다. 맨유가 구단의 상징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풀림에 패한 건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구단주의 포부와 달리 에릭 텐하흐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리그 중위권 팀 풀림(9승 5무 12패 12위)을 상대로 좀처럼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맨유는 리그 6위인 14승 2무

10패(승점 44)를 기록,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막 선인인 4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 차는 8로 벌어졌다. 슈팅수 21대17, 공 점유율 57% 대 43% 등 경기 지표에서 앞선 맨유는 후반 20분 선제골을 허용했다. 코너킥 직후 페널티박스에서 혼전 상황이 나타난 틈을 타 풀림의 중앙 수비수 칼빈 베시가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앙드레 오나나가 지킨 맨유의 골문을 열었다. 맨유는 후반 43분 센터백 해리 매고이어가 동점 골을 넣어 승점은 1이라도 물리는 듯했다. 그러나 맨유는 9분이 주어진 후반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풀림은 경기 종료 2분전 아다마 트라오레가 페널티박스 골문 안쪽에서 알렉스 이위비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문 하단 구석을 찰라 찌릿한 승리를 엮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가르차노가 25일(한국시간) 풀림에 1-2로 패하자 분통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KB 단일시즌 홈 경기 '전승'

15전 15승 여자프로농구 최우수 차를 벌려 놓았다. 3쿼터 들어서도 22점을 넣는 동안 10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며 여유 있는 점수 차가 유지되자 KB는 박지수, 강이슬 등 주전들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는 여유를 부렸다. 4쿼터에도 흐름의 변화는 없었고 KB가 32점 차 대승을 거뒀다. 반면 3위가 확정된 삼성생명명은 2연승이 끊기며 15승 14패가 됐다. 박해미가 10점을 넣었으나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26승 3패를 기록 중인 KB는 29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인천 신한은행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점수 차를 벌려 놓았다. 3쿼터 들어서도 22점을 넣는 동안 10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며 여유 있는 점수 차가 유지되자 KB는 박지수, 강이슬 등 주전들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는 여유를 부렸다. 4쿼터에도 흐름의 변화는 없었고 KB가 32점 차 대승을 거뒀다. 반면 3위가 확정된 삼성생명명은 2연승이 끊기며 15승 14패가 됐다. 박해미가 10점을 넣었으나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26승 3패를 기록 중인 KB는 29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인천 신한은행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Wanna Spin? Advertisement for RomaRo golf clubs featuring the Alcobaca Stream Double Wave and Ray SX-Zero models.